

남원시, 1조474억원 규모 예산안 편성

올해 대비 507억원 증가… 민생 회복·정주기반 확대 등 중점

남원시는 올해보다 507억원(5.1%) 증 가한 1조 474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 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 생 회복, 국익기반 설립, 체류형 문화 관광 콘텐츠 확충, 바이오·드론·스 마트팜 등 미래성장산업 생태계 강화, 출산·보육·교육·주거 등 정주기반 확대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 유 지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산업·정주·복지 전 분야에서 시민 삶의 실 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소 통하며 시민 주권 의지를 예산안에 담 고자 노력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사업(276억원), 노인복지회 관 건립사업(14억원), 노인 목욕비 지 원사업(11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

형 공익직접지불제 직불금(320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210억원), 농민공익수당(76억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53억원), 청년농촌보급 자리 조성사업(36억원) △환경 분야는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17억원) △지리산 에코촌 조성사업 (59억원) △문화관광·교육 분야는 합 파우유원지 디지털테마파크 조성사업 (30억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30억원) △대학협력 지원사 업(43억원), 남원글로벌캠퍼스 환경정 비(7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도·지역개발 분야는 동문박마 을 특화재생(58억원), 동부권 학교복 합시설(54억원), 지리산활력타운(53억 원), 만안공원 조성사업(46억원) △산 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남원 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117억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 성(5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30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차보

전금(1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중소수생활 권 종합정비사업(172억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2억원) 등 안전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170억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고 △공공산후조리 원(7억원) 및 달빛어린이병원(3억원) 운영, 남원 인제학당 준공(62억원), 전 북형 반할주택 건립(60억원) 등 출 산·의료·교육·주거 등 시민이 직 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주여건 개 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최경식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민선 87기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 고, 진행 중인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 도를 높여 더 큰 남원의 도약을 위한 실행 계획”이라며, “시의회와 적극 협 력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 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 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달 18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경로당 비대면 진료 시범운영

남원시, 읍·면 거점경로당 16개소에서 진행

남원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24일부터 읍·면 거점경로당 16개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고 이용 활성도가 높은 경로당을 거점 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추진되며,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 으로 하되 응급의료취약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초진도 허용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거점경로당에 디지털 건강 측정 장비(자율신경기능 검사기, 체성분 측정계, 블루투스 혈압계)를 설치, 또한 시 실정에 맞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도입했으며, 해당 플랫폼은 경로당에 구축된 디지털 장비와 연동되어 어르신

들의 평상시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기록하여 전송한다.

이렇게 수집된 건강 정보는 비대면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는 행정복지센터의 거점경로당 전담 공무원과 해당 마을의 경로당 매니저를 지정하고, 디지털 장비 사용 보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전 예약 △활력징후(혈압·혈당 등) 측정 △비대면 진료 신청·접수

△의료기관 화상 진료 및 처방전 발급, △진료비 결제 △약국 선택 및 의약품 대리 수령·전달(복약지도는 약사가 우선 통화 또는 복약 지도서를 통해 제공)하고, 시는 비대면 진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전담 방문간호사를 배치했다.

방문간호사는 거점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활력징후 측정과 상담을 제공하고, 수요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신청부터 의약품 대리 수령 전달까지 전 과정을 보조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약품 대리 수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주치의가 대리 상담을 바탕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시는 관련 요건과 금지 사항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와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지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순창군은 지난 22일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가 주관한 '제3회 순창군지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관내 선수단과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그라운드 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이남 대회에는 관내 12개 팀이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

됐다. 각 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응원단과 지역 어르신들의 격려와 박수가 이어지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따뜻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 민 임실군수는 국회를 찾아 세계명경 테마랜드 조성사업과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 등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실군, 막바지 예산 확보 총력

심민 군수, 잇단 국회행… 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지원 요청

심 민 임실군수가 국회를 잇달아 찾아가 세계명경 테마랜드 조성사업과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 등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심 군수는 앞선 12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21일에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을 만나 세계명경 테마랜드 조성사업 의 마무리를 위한 최종 연도 예산 반영에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 원을 요청했다.

세계명경 테마랜드 조성사업은 1973년 초등학교 교파서에도 실려 잘 알려진, '주인을 구한 의로운 개'의 고장 오수(鰲臺)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특화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종 연도 사업비(67.1억원)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간 심 군수는 기재부, 문체부 담당 부서를 찾아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지방분권경쟁발전법에 따라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 완료 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다.

심 군수는 이번에 국회를 방문,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계명경 테마랜드 조성사업 최종 연도 예산 67억원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실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주인을 구한 의로운 고장 오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임실군 건의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반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심 군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대박 관광지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의 관광자원 간 연계 강화와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370M 옥정호 생태탐방 교량 건립 사업 지원도 건의했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 생태관광지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연결 교량 설치가 필수이고 특히 봉어섬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접근이 어렵다”며 “전국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 건설 이후 임실군과 군민이 감내해야 했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량은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 상생발전 교류

남원시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자매도시인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서 열린 중한(염성)산업원 경제무역 협력교류회에 참가했다.

염성시는 인구 800만 명의 경제·산업도시로서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SK온 등 한국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남원시와는 1996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며 우호를 증진해 왔다.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중한산업원 경제무역 협력교류회와 한국상품 무역투자 박람회에 참석하고 염성 내 주요 산업 현장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남원시와 염성시의 2026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개최 장소, 행사 시기, 프로그램 구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남원 글로벌캠퍼스 유학생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염성시 고등학교 연방 방문 추진 협조와 제96회 춘향제 초청 의사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귀농·귀촌 유치정책 ‘우수’

순창군이 국내 대표 농업 박람회인 '2025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하며 귀농·귀촌 유치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으며, (주)세세코리아가 주최·주관해 전국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귀농·귀촌 유치와 농정 홍보가 활발히 이뤄졌다.

순창군은 △이사정착비 지원 △귀농자 소득기반 조성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 단계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현장 중심 상담서비스가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순창군은 올해 부산 박람회를 포함해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유치 활동을 총 6회 실시하며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90여 명에게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이 도 시민에게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새로운 기회 의 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란다”며 “이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농촌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지사협, 제2차 대표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심 민·정학성)가 지난 20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제2차 대표·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결과 보고,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 등을 통해 임실군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심 민 군수는 “민·관이 협력해 군민이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